논어 7편 술이 23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二三子，以我爲隱乎？吾無隱乎爾！吾無行而不與二三子者，是丘也。」

독음 · 자왈 이삼자 이아위은호 오무은호이 오무행이불여이삼자자 시구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는 제자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을 모두 함께 보여 준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二 두 이 이 / 三 석 삼 삼

以 써 이 이 / 我 자기 아 아 / 爲 할 위 / 隱 숨을 은 은

乎 어조사 호 / 吾 자기 오 오 / 無 없을 무 무 / 爾 너 이 이

行 다닐 행 행 / 而 말이을 이 / 不 아닐 불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

者 놈 자 / 是 이 시 시 / 丘 언덕 구 구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